

공공기관도 디지털인재 모시기... 도로·조폐공사 등 채용

한국도로공사

행정·기술 분야 80명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

행정·정보기술 분야 71명 선발

한국조폐공사

보안 등 IT분야 핵심 인재 충원

새만금개발공사

기술·정보화·행정 부분 신입채용

서울관광재단

관광안내 부문 정규직 공개채용

<10월 주요 공공기관 신입 채용소식>

모집기업	모집기한	모집공고	지원처
한국산업인력공단	~10/21(수)	하반기 신규직원(일반6급) 채용	각 사 채용 홈페이지
한국도로공사	~10/22(목)	하반기 신입(인턴)사원 공채	
한국조폐공사	~10/26(월)	하반기 IT분야 신입직 모집	
새만금개발공사	~10/26(월)	하반기 채용	
서울관광재단	~11/2(월)	전문직(정규직) 공채	

* 위 사항은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크루트

(토의기준 700점 이상)여야 하며, 기술 직의 경우 선발분야 기사이상 자격증을 보유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전형절차는 ▲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필기전형(직업기초능력평가 30%, 직무수행능력평가 70%) ▲면접전형(직무 및 인성) 및 인성검사 ▲최종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되며, 입사지원은 오는 22일 15시까지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일반직 6급 신규직원을 채용한다. 강원, 부산, 대구, 인천 등 권역에서 ▲일반행정 ▲기록물관리 ▲정보기술 분야 신입사원 71명을 선발하는 것.

전형절차는 ▲원서접수 ▲1차전형 ▲지원자격 적부심사 ▲2차 면접시험 ▲수습임용 ▲3개월 근로평가를 거쳐

정규직 임용이 이루어진다. 1차 필기시험에서는 직업능력, 한국사를 공통으로 평가하며, 2차 면접시험은 다대다 면접, 집단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서는 오는 21일 15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 필기시험은 내달 7일, 면접시험은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조폐공사는 IT분야 핵심 인재 충원에 나섰다. 이달 26일 17시까지 IT분야 신입직원(채용형인턴)을 모집 중이다. 조폐, 인증, 보안 서비스 실현에 필요한 IT인재를 선발한다. 블록체인연구를 비롯해 ▲백엔드 ▲모바일 ▲시스템엔지니어 ▲클라이언트(자바, C#) ▲정보보안 등 다양한 IT분야

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및 코딩테스트, 인성검사) 발표 및 면접시험을 통해 채용형 인턴을 선발하며, 이후 3개월 인턴기간 종료 후 교육훈련 및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임용된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기술 ▲정보화 ▲행정(장애인) 부문에서 하반기 신입직을 채용한다. 학력, 성별, 연령없이 지원가능하며, 직무별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은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한 채용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전형절차는 ▲서류심사 ▲필기전형(NCS, 전공필기, 인성검사) ▲종합면접 순으로 진행, 입사지원서는 이달 26일까지 새만금개발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끝으로 서울관광재단은 전문직(라 급 신입사원)을 공개채용 중이다. ▲관광안내(영어, 중국어, 일본어) ▲무장에 관광안내 부문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한다. 각 직무별 근무지는 차이가 있다. 지원자격은 공인어학성적 보유자(토의기준 800점 이상)이며, 서류전형 이후 ▲인성검사 ▲1차, 2차 면접전형 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입사 지원서는 내달 2일까지 서울관광재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현진 기자 ihj@metroseoul.co.kr



남성희 전문대학교 협회장이 '코로나19 극복, 전국 전문대학이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판넬을 들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전문대학교협

전문대학교협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참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협의회 회장 및 직원 공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종식을 기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성희 회장은 전문대학교에서 '코로나19 극복, 전국 전문대학이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판넬을 들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지난 3월 외교부가 시작한 눈 릴레이 캠페인으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극복과 종식을 위해 함께 응원하며 견뎌 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참여는 김명중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의 추천을 받아 진행됐으며 남성희 회장은 다음 주자로 윤여송 인덕대학교 총장을 추천했다.

/이현진 기자

서육 국방부 장관 美 출국,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

전작권전환·연합방위태세 등 주요 안보현안 논의

SCM 앞서 한국전쟁 기념관서 참배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변경·완화 주목

서육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서 열리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13일 오후 공군 공중급유기(KC-330)편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4일 열리는 이번 SCM에서 서 장관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SCM에 앞서 한국전쟁 참전기념관에서 참배를 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정책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동맹 현안 전반이 논의 될 것으로 보여진다.



서육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를 하고 있다. /국방부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존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에 대한 평가 및 검증 방식을 계속 유지할지, 일부 방식을 변경 또는 완화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한미 당국은 전작권을 ▲한국군 핵

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충족 등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한 후 전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검증이 지연되면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내에 전작권 전환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능력 검증을 내년 초 실시하기 위해 협의 중이지만, 코로나19로 올해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2단계 FOC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으로 올해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마친 뒤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지만 2단계 FOC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3단계 FMC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선포식 /호서대

호서대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선포

호서대는 2021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난 13일 아산캠퍼스 대학본부에서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선포식'을 갖고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 및 면접평가에 참여할 내부 입학사정관을 위촉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자의 평가역량 강화와 윤리성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도 열렸다. 이번 위촉된 37명의 내부 입학사정관들은 40시간 이상의 이론 강의 및 모의평가를 거쳤다.

김종호 부총장은 격려사에서 "올해는 우리 대학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 학생부종합전형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돼 대학에 지원하시는 수험생이나 학부모에게 학생선발 평가과정이나 평가결과 뿐만 아니라 평가자인 위촉사정관 교수에 대한 신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서강대, 총장해임 절차 이의제기 이사 해임

박 前 총장 소송비용 갈등 여전

비리 교원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출했던 박종구 서강대 총장과 이를 문제 삼은 학교법인 간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인이 박 총장의 해임에 반기를 들었던 이사를 최근 해임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4일 서강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회는 13일 제4차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고 박종구 총장 해임 절차에 반기를 들

고 이의를 제기했던 이사 A씨의 해임을 통과시켰다.

앞서 서강대 학교법인은 지난 5월 박 총장에게 사임을 권고했다. 박종구 총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소송비용을 교비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가 된 소송비용은 박 총장이 지난 2017년 당시 서강대 법인 상임이사 이사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서강지주)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신부

와 본부장, 전직 산학협력단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발생했다.

이들이 서강지주가 세운 자회사의 지분과 산학협력단의 특허들을 다른 기업에 헐값에 매각해 학교에 손실을 끼쳤다는게 당시 박 총장의 지적이다.

그러나 법인은 박 총장이 제기한 소송 비용 출처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임을 요구했다. 박 총장이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비용 등 1억7600만원을 이사회 승인 없이 교비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서강대 한 관계자는 "3차 이사회에서 이사 A씨가 박 총장의 해임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관련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게재할 것을 권했으나 법인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결국 법인 측은 회의록 게재를 요청했던 이사 A씨를 13일 열린 이사회에서 해임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결국 선임 이사 승인은 거부됐다"면서 "서명을 거부해 보선 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됐고, 이 때문에 이사회 회의의 진행이 방해됐다는 게 법인 측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